

전국체전 성공 개최 준비 만전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 시설공사·선수·관람객 위한 숙박시설 확보 등 나서

익산시가 10월 치러지는 2018 전국 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개·폐회식이 진행되는 익산종합운동장 시설공사와 선수·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주차장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88회 장애인체전은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와 군산·완주 등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시는 이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경제체적으로 치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은 지난해 11월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육상 제1종 공인 1차 검사를 완료했다.

익산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 완공된다.

이 곳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150석 규모의 장애인 관람공간 조성, 경기장 관람석을 휠체어로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통로를 설치해 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1월 전국체전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주재 추진계획 보고회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현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익산시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청림총회를 개최 하는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도 참여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 확보와 주차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8000명에서 1만명까지 익산에서 숙박할 것으로 보고 962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 2곳을 포함해 4593실을 확보했다.

또 여산면 부사관학교와 약촌오거리에 건립 중인 컨벤션호텔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종합운동장에 800대, 인근 쓰레기아적장에 2000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로(양측)에 530대 등 총 6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길거리 꽃조성 등 도심환경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양기 등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통해 시민 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모두 26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7000여명이 참가한다.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8개 종목(육상, 펜싱, 탁구, 배드민턴, 볼링, 축구, 론볼, 게이트볼)이 개최된다.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8개 종목(육상, 펜싱, 탁구, 배드민턴, 볼링, 축구, 론볼, 게이트볼)이 개최된다.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8개 종목(육상, 펜싱, 탁구, 배드민턴, 볼링, 축구, 론볼, 게이트볼)이 개최된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에 익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지는 제99회 전국체전은 모두 47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한다.

주 개최지인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14개 종목(육상, 야구, 소프트볼, 복싱, 펜싱,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 배구, 에어로빅, 골프, 트라이애슬론, 검도, 볼링)이 열린다.

또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모두 26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7000여명이 참가한다.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8개 종목(육상, 펜싱, 탁구, 배드민턴, 볼링, 축구, 론볼, 게이트볼)이 개최된다.

익산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8개 종목(육상, 펜싱, 탁구, 배드민턴, 볼링, 축구, 론볼, 게이트볼)이 개최된다.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성료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9일 공에서 익산시장 및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기관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인의 새로운 비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8년 사업계획 소개, 신년인사, 축사, 내빈답답, 신년축하 떡 절단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시는 지난해 민간 사회복지인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평가에서 통합사회·민

관협력·자원연계 분야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비롯 맞춤형복지 기반 조성, 일자리창출 등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올해는 모든 읍면동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행복센터로 전국의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오성배 회장은 "출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기운을 가득 품고 사회복지인 모두가 열정과 소통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평가에서 통합사회·민

관협력·자원연계 분야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비롯 맞춤형복지 기반 조성, 일자리창출 등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올해는 모든 읍면동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행복센터로 전국의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호응

익산시(시장 정현을)에서 이달 4일부터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2018 주민과의 대화'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기존 주민간담회의 틀을 깨고 각 지역 주민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이다.

기존 주민간담회의 달리 2018 주민과의 대화의 가장 개선된 점으로 평가되는 점은 시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추진사항을 일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2018 주민간담회'에서 한 건 한 건 시장이 직접 설명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2017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488건의 주민 건의사항은 285건의 완료와 법정 기간이나 물리적 시간이 필요

한 116건의 처리중인 사항과 104건의 장기처리 과정의 민원을 거치고 있으며 처리불가 사항은 33건에 불과해, 99.3%의 민원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로 개보수 등 교통차단 민원, CCTV 등 안전시설 확충,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경로당 시설 보강 등 노인 복지 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법적 절차와 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복지관 건립 등 주민편의 시설에 있어서도 신속히 법적 절차와 예산 확보를 통하여 민원의 적극 처리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불가 사항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인이 필요하거나 법적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적극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청결도시 조성 주력

최양욱 복지환경국장 "사랑·활력 넘치는 익산 되도록 노력" 다짐

익산시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2018년 기치로 내걸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조성에 집중한다.

시는 먼저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공공형·열린·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어린이집 대상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제공,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한다.

행복한 여성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빠랑 행복캠프, 다둥이 행복축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왕궁 현암축사 매입, 새만금 공공충전시설 설치 등에 나설



익산시가 9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최양욱 복지환경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양욱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익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금마·남부권 도서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등에 나선다.

최양욱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익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백옥경씨 재선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제4대 이사장에 백옥경 씨가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백옥경 이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전임 이사장 잔여임기를 마치고 8일 개최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임의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추천을 통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백옥경 이사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군산시 자원봉사활동화와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신속한 자원봉사센터의 터전에서 자원봉사의 비전을 가꾸고 진정한 허브 역할을 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옥경 이사장은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군산지구원불교여성회 회장과 금강새마을금고 참소리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군산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적극 추진

군산시가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논(他)작물 재배(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 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군산시의 계획면적은 827ha로 ha당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 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며, 2017년 쌀 적정생산량에 대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농가가 이를 유지하면서 신규 면적 최소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마을 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 행복돌봄센터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